

성인에착은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윤 성 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용서의 두 측면인 특질용서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성인에착유형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용서특질 척도, 한국인 용서척도, 친밀관계 경험-개정판, 삶의 만족도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질용서와 상황-특정적 용서는 모두 성인에착유형의 두 하위차원인 회피애착 및 불안애착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안녕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모두 안녕감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용서의 두 측면 모두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애착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은 특질용서가 높아짐에 따라 안녕감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상황-특정적 용서의 경우에는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상황-특정적 용서를 많이 할수록 안녕감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침해사건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안녕감 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촉진을 위한 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애착 수준을 고려하여 불안애착의 정도에 따라 용서개입을 달리 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특질용서, 상황-특정적 용서, 성인에착, 안녕감, 조절효과

* 교신저자: 윤성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 02-2290-0381, Email : ysm0714@gmail.com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고전적 성격적 강점들의 본질 및 그 영향에 대해 활발히 검토해오고 있다(예, Gable & Haidt, 2005;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그러한 성격적 강점들 중 하나가 “용서”이며, 최근, 대인관계에서의 용서의 본질 및 용서촉진 개입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e.g., Emmons, 2000; McCullough, 2000; Worthington, 1998). 대인관계에서의 용서는 장기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이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Berry & Worthington, 2001; Bono, McCullough, & Root, 2008; Emmons & McCullough, 2003; Maltby, Day, & Barber, 2005; Witvliet, Knoll, Hinman, & DeYoung, 2010; Witvliet, Ludwig, & Vander Laan, 2001), 이러한 검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용서를 촉진하는 개입들을 시도한 결과, 자존감, 희망, 가해자를 향한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우울, 불안, 분노, 슬픔, 그리고 가해자를 향한 복수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Al-aMabuk, Enright, & Cardis, 1995; Coyle & Enright, 1997; Freedman & Enright, 1996; Hebl & Enright, 1993; McCullough & Worthington, 1995). 용서 관련 사고는 또한 스트레스 관련 생리학적 반응(예, 심장박동, 혈압, 신경분비계 반응 등)을 낮추는 것으로도 밝혀졌다(Berry & Worthington, 2001; Lawler et al., 2003; Witvliet et al., 2010; Witvliet et al.,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신체적·정신적 안녕감의 증진을 위해 용서를 촉진하는 개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용서촉진 개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효과가 있을까?

어떤 특성의 개인이 용서촉진 개입을 통해 좀 더 효과를 얻고, 어떤 개인은 덜 효과를 얻을 것인가? 어떤 개입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절변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윤성민, 2011). Boehm과 Lyubomirsky(2009)는 행복에 대한 미래 연구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하는 변화의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내담자와 적합한 의도적 활동 사이에 ‘맞춤(fit)’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모든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행복 증진을 위한 의도적 활동들이 최적의 행복과 안녕감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조절변인을 찾는 것이 결정적임을 제안한다. 최근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는 용서개입에 대해서도 조절변인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서개입의 안녕감 증진효과를 조절하여 주는 변인을 밝히기 위한 일차적 시도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자료조사를 통해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성과를 성인 애착유형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용서촉진 개입의 효과를 예측해주는 개인차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한다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똑같이 이 개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개인에게 이 개입을 권할 것인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개인에게는 다른 개입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즉, 용서개입을 상담 장면에 적용할 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별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한 횡단적 조사결과는 실험적 방법을 통한 재검증을 위한 후속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용서의 정의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부족하지만(Worthington, 2005), 지금까지 연구의 초점이 되어온 용서의 구체적인 측면들은 크게 두 부류의 정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특질로서의 용서(dispositional forgiveness)에 초점을 두는 정의이며(Berry, Worthington, Jr, O'Connor, Parrott, & Wade, 2005; Brown, 2003), 둘째는 상황에 따른 또는 관계-특정적 용서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이다(McCullough et al., 1998). Berry 등(2005)과 Roberts(1995)에 의하면, 특질적 용서는 시간의 변화와 다양한 상황에 걸쳐 안정적이고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전적으로 용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 긍정심리학의 맥락에서 성격적 강점과 덕성으로서의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보복 욕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보다 자애롭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성격적 강점으로 정의되며 이는 개인이 지닌 긍정적인 성격적 특성 또는 특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특질로서의 용서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긍정적인 행동양식이나 탁월한 성품을 말한다(김지영, 권석만, 2009). 한편, 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2000)은 ‘용서란 “구체적인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지각된 가해자를 향한 개인 내적인, 친사회적 변화”(p. 9)로서, 가해자를 보복하거나 회피하려는 동기가 감소하고 자애를 향한 동기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대인관계적 맥락에서의 상태용서의 개념을 정의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질 및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는 특정한 가해자나 구체적인 가해행동에 대한 상황-특정적 용서라기보다는, 대상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든 관대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서성향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상황-특정적 용서는 용서특질과는 독립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얼마나 용서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다루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인은 특정한 한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용서를 많이 했지만 다른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용서를 적게 했을 수도 있다. 또한 한 개인의 특질적 용서수준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용서를 적게 또는 전혀 안 할 수도 있는 등 한 개인의 상황-특정적 용서의 정도는 개별적인 사건 및 가해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용서의 두 측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모두 대인관계 관련 구성개념으로서 친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Cullough, 2000; McCullough et al., 2000; McCullough et al., 1998). 따라서 대표적인 대인관계 관련 이론인 애착이론을 연구하는 소수의 연구자들은 용서와 애착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해왔다(Burnette, Taylor, Worthington, & Forsyth, 2007; Finkel, Burnette, & Scissors, 2007; Kachadourian, Fincham, & Davila, 2004; Mikulincer & Shaver, 2008; Mikulincer, Shaver, & Slav, 2006).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일관적으로 성인들의 애착유형에 따라 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침해행동에 대한 용서경향성 및 구체적인 용서사건에 따르는 심리적 경험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kulincer와 Shaver(2008)에 의하면, 애착이론

(Bowlby, 1969/1982, 1973, 1980)은 용서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를 통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적 이론이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내적인 정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는 등 외부세계에 대한 한 개인의 반응유형 및 새로운 상황들과 관계의 양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ollins & Read, 1994; Mikulincer & Shaver, 2003).

대부분의 애착연구는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 이후 영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애착연구의 주제 및 대상이 확장되어 성인애착과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해졌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애착유형도 Ainsworth의 영아애착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나 생애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초기 영아애착유형이 내적작동모델로 지속되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애착 대상이 확장되고 발전됨을 밝혔다. 성인애착유형은 종종 두 개의 차원을 가진 공간 안에 있는 영역으로 개념화되는데(Brennan, Clark, & Shaver, 1998), 첫 번째 차원은 회피애착 차원으로 불리며, 한 개인이 관계 파트너의 선의를 불신하고 자율성과 파트너로부터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불안 애착 차원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차원은 한 개인이, 필요할 때 파트너가 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두 차원 모두에서 점수가 낮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애착된 경우라고 여겨진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이 두 차원에서의 다

양한 변형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작동모델과 그가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Bowlby, 1973; Shaver & Hazan, 1993; Shaver & Mikulincer, 2002). 타인들의 가용성, 반응성, 민감성, 선의에 대한 표상을 의미하는 타자-작동 모델은 가까운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들에 대해 사람들이 내리게 되는 평가에서의 애착유형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된다(Mikulincer et al., 2006). 예를 들면, 타자-작동 모델은 종종 관계-파트너들에 대해 한 개인이 내리는 평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ikulincer et al., 2006; Shaver & Clark, 1994; Shaver & Hazan, 1993; Shaver & Mikulincer, 2002). 따라서 이러한 타자-작동모델은 타인의 침해행동에 대한 평가와 해석, 용서의향 및 용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의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은 편견감소,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높은 인내심, 높은 공감, 높은 이타심, 높은 동정심, 높은 인본주의적 가치, 높은 범우주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기능의 긍정적인 측면들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6; Feeney, 1996; Kuncz & Shaver, 1994; Mikulincer & Nachshon, 1991; Mikulincer & Shaver, 2003).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인들 사이의 관계와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용서와 애착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Mikulincer 등(2006)의 연구에서 회피적 애착자들은 낮은 용서특질, 높은 복수특질과 회피특질을 보여주었고, 공감, 동정심, 친절성도 모두 낮았다(Mikulincer & Shaver,

2005; Mikulincer et al., 2006). 또 다른 예로, Kachadourian 등(2004)의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에서와 부부관계 모두에서 회피애착자들은 파트너의 침해행동이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Mikulincer 등은 회피애착자들은 타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고 파트너를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파트너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그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거나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성격적 특질 탓으로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와는 달리, 불안애착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즉, 불안애착자들은 용서를 적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분명히 약화시키는 상충되는 감정으로 용서의 효과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Mikulincer 등(2006)의 연구에서 불안애착은 용서특질과는 정적으로도 부적적으로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용서와 관련된 자기에적 상처 경험에 대해서는 불안애착이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자들이 용서를 적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용서를 하고 난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복잡한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ikulincer 등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불안애착자들은 상대방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 두 가지 상충되는 충동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불안애착자들은 “분리불안,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절실한 욕구, 과도한 의존적 태도 등 때문에 자신들의 유감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기 쉽고 자기보호적인 동기에서 용서를 하게 되기 쉽다”(p.206)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엔 용서를 하고 난 이후에도 결국 “침해사건에 대한 반복적

인 침투적 사고와 상대방의 가용성, 민감성, 의존가능성에 대한 의심, 자기 가치감 및 그들 사이의 관계의 안정성과 영구성에 대한 의심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p.206)는 것이다. 즉, 불안애착자들은 용서를 적게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복잡한 심리적 기제 때문에 용서를 하고 난 후에도 용서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그들의 관계의 개선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용서와 애착의 관련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결과들 및 관련 설명들은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불안애착의 조절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불안애착이 높은 자들은 분리에 대한 불안이나 자기 보호적 동기로 인해 용서를 쉽게 하게 되겠지만, 용서를 하게 되더라도 용서에 대한 상충되는 양가적 감정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용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관계적인·개인적인 이득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성인애착유형 중 불안애착이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회피애착자들의 경우는 이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모델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서를 적게 할 것이지만 용서를 하게 될 경우라도, 불안애착자들이 겪는 상충되는 복잡한 심리적 기제 등으로 인해 용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회피애착은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근의 많은 이론적·경험적 결과들은 용서가 안녕감과 정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지지한다(Emmons & McCullough, 2003; Friedman, 1989, 1992; Worthington & Wade, 1999; Worthington, Berry, Parrott, Plante, & Sherman, 2001). 한편, 애착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에 대

한 연구들은 애착이 안녕감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예측요인임을 증명하였다(예, Love & Murdock, 2004; Rice, Cunningham, & Young, 1997). 이렇듯 용서와 애착은 모두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용서, 애착, 안녕감은 서로 연결되는 구성개념들이며, 특히 용서와 애착안정은 친사회적 성격을 공유하는 서로 연관된 면이 많은 구성개념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세 구성개념의 관계를 한 연구에서 동시에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특히,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애착이 조절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애착과 용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거의 모두 애인관계 및 결혼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뿐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애착과 용서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집에서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애착이 조절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애인관계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절친한 동성친구와의 관계,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균형 잡힌 자료를 얻음으로써 애착과 용서, 안녕감 사이의 관련성이 애인 및 부부 사이에서 뿐 아니라 다른 관계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화에 의거하여 용서의 대표적인 두 측면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용서를 측정하는 도구로 특질용서 측정도구와 상황-특정적 용서 측정도구, 2가지를 모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된다면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 관련 침해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내담자들의 안녕감을 높이고 부정적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용서개입을 시도할 때,

애착유형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어떤 개인들에게는 애착안정을 촉진하는 개입을 함께 도입하는 등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요하다. 또한 만일 이 가설이 검증된다면, 추후에는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용서에 중점을 둔 개입에 애착안정을 촉진하는 개입을 추가로 도입하여 보완한 경우에 애착안정 촉진 개입을 뺀 경우보다 안녕감 증진에 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봄으로써 용서가 안녕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안정이 촉진하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불안애착은 용서특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2. 불안애착은 상황-특정적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회피애착은 용서특질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4. 회피애착은 상황-특정적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부생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이중 무작위로 응답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31부를 제외한 489부의 자료 중, 사전동질성 검증을 통해 다른 유형의 관계들과 평균이 동질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먼 동성친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 89부는 빼고 나머지 400부의 자료들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성별 분포는 여자 215명(53.8%), 남자 184명(46%)이었고, 평균 연령은 21.41세였다. 이중 대학 1학년이 86명(21.5%), 2학년이 66명(16.4%), 3학년이 141명(35.3%), 4학년이 99명(24.8%), 무응답이 4명(1%)이었다.

연구절차

앞서 서론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관계로부터 애착 및 용서의 정도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수집하고자 설문지를 부모, 형제자매, 이성친구, 절친한 동성친구, 먼 동성친구를 대상으로 응답을 요구하는 5개 종류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각 종류의 설문지들 간에 모든 문항의 내용은 동일하였으며, 단지, 상황-특정적 용서를 측정하는 도구인 한국인 용서척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떠올려 응답해야 하는지만 달랐다. 각 설문지의 표지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떠올린 상태에서 그 대상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응답하여야 하는지 사전에 지정 및 설명되어 있었고, 설문지 응답 전에도 이 점을 분명하게 구두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모,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의 경우엔, 부모나 형제자매 중 구체적으로 누구를 떠올렸는지를 표지의 하단에 제공된 응답지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성친구가 없는 학생들도 많으므로,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그 학생들의 경우엔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섯 종류의 관계로부터 균형 잡힌 자료를 얻기 위해 5개 종류의 관계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긴 하였지만, 분석 시엔 이들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유형별 설문지의 비율은 부모-90부(18.4%), 이성친구-126부(25.8%), 형제자매-91부(18.6%), 가까운 동성친구-93부(19%), 먼 동성친구-89부(18.2%)였다. 상황-특정적 용서의 경우 서로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였던 상처 및 용서에 대한 응답이므로 상처 및 용서에 대한 응답이 만약 각각의 관계마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자료들을 통합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상황-특정적 용서를 측정하는 한국인 용서척도의 4번 문항인 그 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정도를 묻는 문항과 5번 문항인 그 상처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 그리고 상황-특정적 용서 총점에 대해 각각 변량분석(ANOVA)을 통한 사전동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4번 문항과 상황-특정적 용서 총점에서 다른 관계들과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먼 동성친구로부터 얻은 자료 89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4종류의 자료들만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측정도구

용서특질척도(Forgiveness Trait Scale: FTS)

본 연구에서 용서특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김지영과 권석만(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용서특질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정과 보복욕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보다 자애롭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덕성’으로서의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상황특정적인 용서와는 구별되는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는 특정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과는 구분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용서 성향에 가까운 개념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이나 특질에 해당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되어 있고,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점 (0-3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역산 문항은 없고,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영과 권석만(200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 .84를 나타냈다.

한국인 용서척도(Korean Forgiveness Scale: KFS)

특정한 대인관계에서의 침해 사건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기 위한 상황-특정적 용서측정 도구로는 오영희(2008)가 개발하고 타당화한(오영희, 2010)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5 문항)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기술과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서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기술한 뒤에 상처의 심각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한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 반응(정서, 인지,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으로서 5점(1-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24문항은 정서반응 9개(긍정 4개, 부정 5개), 인지반응 7개(긍정 3개, 부정 4개), 행동반응 8개(긍정 2개, 부정 2개)이다. 용서점수가 높을수록 용서를 많이 한 것을 의미하고 점수의 범위는 24-120점이다. 오영희(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Cronbach's a* =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 .95를 나타냈다.

친밀관계 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R)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Fraley, Walker, & Brennan 등이 2000년에 개발한 성인애착 유형 검사 도구인 친밀관계 경험-개정판을 김성현(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검사는 성인의 애착유형을 두 개의 직교차원인 애착 불안 차원과 애착회피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차원은 18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6문항으로 되어 있다. 7점 리커트식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하위차원의 점수의 범위는 18-126점 사이이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애착불안 하위척도의 경우엔, *Cronbach's a* = .89였고, 애착회피 하위척도의 경우엔, *Cronbach's a* =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하위차원 각각 *Cronbach's a* = .92, .89이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삶에 대한 만족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인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경(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7점 리커트식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점의 범위는 5-3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7이었고, 이은경(2005)에 의해 번안된 SWLS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고, 예측변인인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준거변인인 안녕감과 관계에 미치는 조절변인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분석에 앞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원점수를 중심화(centering)하였고, 중심화한 값으로 상호작용 변인을 생성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시에는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애착유형(불안애착, 회피애착으로 측정)을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때 용서특질과 상황-특정적 용서를 각각 개별적으로 예측변인으로 하여 애착유형의 하위요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각 하위요인별로 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모두 4차례에 걸친 독립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결 과

사전 동질성 검증

서로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였던 상처 및 용서에 대한 응답이 각각의 관계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황-특정적 용서를 측정하는 한국인 용서척도에서 상처의 정도를 묻는 4번 문항, 부당한 정도를 묻는 5번 문항, 그리고 상황-특정적 용서 총점

에 대해 다섯 유형의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 변량분석(ANOVA)을 통한 사전동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변량분석을 통한 F 검증 결과에서 4번 문항과 용서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번 문항: $F(4, 457) = 3.93, p < .01$, 용서총점: $F(4, 457) = 15.085, p < .001$). 사후검정 결과, 다른 관계의 유형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먼 동성친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 89부를 제외한 후 다시 동일한 문항들에 대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종류의 자료들 간에는 4번 문항($F(3, 375) = 2.65, p = .098$), 5번 문항($F(3, 375) = 1.91, p = .127$), 용서총점($F(3, 375) = .514, p = .673$) 모두에서 더 이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예측변인인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조절변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그리고 준거변인인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서특질과 상황-특정적 용서는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한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삶의 만족도로 측정된 안녕감 사이의 관계가 애착안정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 회귀분석,

표 1. 용서특질, 상황-특정적 용서,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 삶의 만족도의 상관분석(r)

변인	1	2	3	4	5
1. 용서특질					
2. 상황-특정적 용서	.143**				
3. 불안애착	-.134**	-.167**			
4. 회피애착	-.195**	-.237**	.280**		
5. 삶의 만족도	.219**	.162**	-.369**	-.257**	

* $p < .05$, ** $p < .01$, *** $p < .001$

특히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애착 안정을 측정할 척도의 하위요인별로 각각 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첫 번째 단계에 용서특질, 상황-특정적 용서와 불안애착, 회피애착을 각각 1단계에 투입하고, 용서특질, 상황-특정적 용서와 불안애착, 회피애착의 상호작용변수를 2단계에 투입하였다. 준거변인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따라서 주효과를 통제할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불안애착과의 상호작용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회피애착과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서 네 개의 가설들이 모두 지지되었다. 유의한 결과만을 표 2, 표 3과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고 상호작용효과가 유효하지 않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회피애

표 2. 용서특질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ΔR^2	F	$\beta(B)$	
삶의 만족도	1단계	용서특질	.166	.166	38.045***	.173(.197)***
		불안애착				-.346(-.117)***
	2단계	용서특질 × 불안애착	.176	.010	4.745*	-.101(-.005)*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상황-특정적 용서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ΔR^2	F	$\beta(B)$	
삶의 만족도	1단계	상황-특정적 용서	.148	.148	31.197***	.102(.038)*
		불안애착				-.331(-.110)***
	2단계	상황-특정적 용서 × 불안애착	.167	.019	7.947**	-.138(-.00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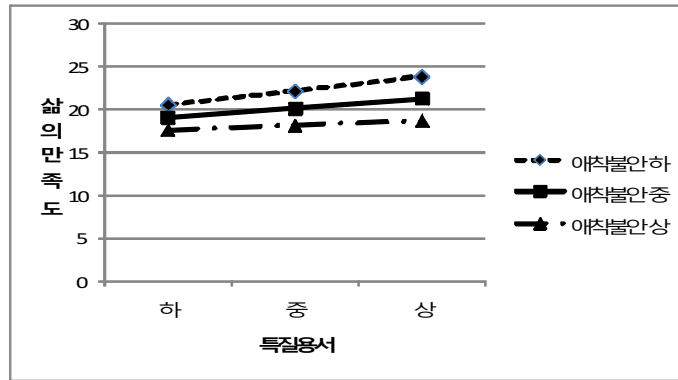


그림 1.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용서특질과 불안애착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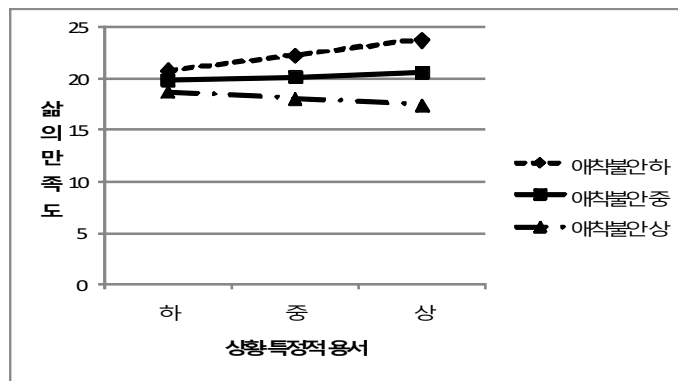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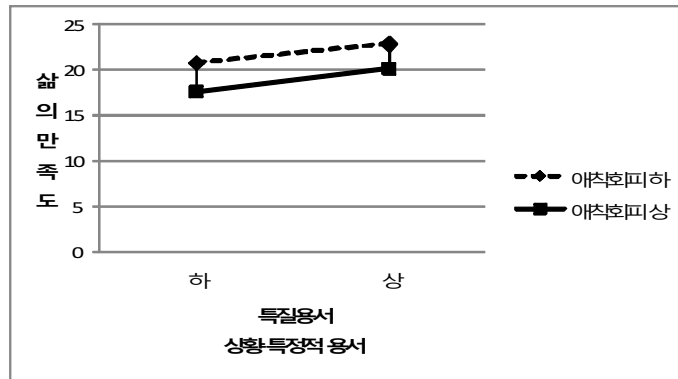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황-특정적 용서와 애착불안의 상호작용 효과



주. 특질용서와 상황-특정적 용서 각각을 예측변인으로 한 경우에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므로 그림을 하나로 제시하였음.

그림 3. 삶의 만족도에 대한 특질용서/상황-특정적 용서와 회피애착의 관계

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의 양상 파악을 위해 그림만 제시하였다(그림 3).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피애착의 경우는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용서특질과 상황-특정적 용서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감이 유사한 기울기로 증가하였다.

표 2를 보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용서특질과 불안애착의 상호작용효과가 주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불안애착의 수준은 용서특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을 알 수 있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용서특질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은 비율로 증가되었다. 이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용서특질과 불안애착의 평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의 점수를 얻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계산하여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을 보면, 불안애착의 모든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용서특질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용서특질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은 비율로 증가되었다. 반대로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은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보다 용서특질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특질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데 불안애착이 낮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용서특질이 아닌, 특정한 대인관계에서의 침해사건에 대한 상황-특정적 용서와 불안애착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안애

착의 상호작용효과가 주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불안애착의 수준은 상황-특정적 용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황-특정적 용서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졌다. 이를 그림 2를 통하여 살펴보면, 불안애착이 중간정도이거나 낮은 사람들은 상황-특정적 용서가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불안애착이 중간인 사람들보다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이 상황-특정적 용서가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다. 반대로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특정적 용서가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즉, 애착안정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엔 특정한 대인관계에서의 침해사건에 대해 상황-특정적 용서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반대로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대인관계에서의 침해사건에 대해 상황-특정적 용서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용서의 두 측면인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안녕감과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에 애착유형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아래에 주요한 연구결과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예측변인인 용서관련 두 측면, 즉,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 조절변인인 성인애착의 두 하위차원,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그리고 준거변인인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 용서관련 두 측면들과 성인애착의 두 하위 차원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애착관련 두 하위차원들은 모두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용서관련 두 측면들은 모두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앞선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특질로서의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상대방을 용서하는 상황-특정적 용서는 모두 개인의 안녕감에 정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용서 및 안녕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용서의 두 측면, 즉, 특질적 용서 및 상황-특정적 용서와 삶의 만족도 척도로 측정된 개인의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의 조절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선 선행연구들에서도 용서특질과 상황-특정적 용서는 개인의 안녕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불안애착은 개인의 안녕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것은 모든 개인들이 용서에 따르는 안녕감의 혜택을 경험하는 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특질적 용서로부터 안녕감을 얻는 효과가 불안애착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은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보다 용서특질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

도가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모두 그들의 용서특질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불안애착이 낮을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용서와 애착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Mikulincer 등(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Mikulincer 등의 연구에서는 애인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자들은 용서경험과 관련하여서 자기애적 상처의 느낌을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kulincer 등은 “불안애착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자기완성을 위해서는 관계의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파트너가 그러한 혜택을 보장해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타인에 대한 혼합된 모델을 가지고 있다”(p.206)고 보았다. 이들의 이러한 성향은 결혼관계를 포함한 장기적인 관계를 간절히 원하며 따라서 불안애착자들은 이러한 장기적인 관계에 동반되는 “사랑”이나 “헌신”을 적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용서 및 감사를 포함한 사랑이나 헌신의 경험을 흔탁하게 만들고 장기적 관계를 망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기 쉬운 것이라고 했다. 즉, 이들은 자기보호적인 동기에서 자신의 유감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고 쉽게 용서를 하게 될 것이지만(Shaver & Hazan, 1993) 이러한 경우엔 용서를 하고난 이후에도 유감스러운 감정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기 쉽고 결국 침해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침투적 사고와 상대방 및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으로 인해 그들이 용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상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심리적 기제로부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용

서특질이 높지만 불안애착도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용서특질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안녕감이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적을 것이다(Mikulincer et al., 2006). 또한 용서특질과 안정애착은 높은 공감능력, 높은 이타심, 높은 동정심 등의 친사회적 특성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둘이 동시에 높으면 서로를 상승하는 방향으로 촉진적 영향을 할 것이므로 용서특질이 높은 사람이 불안애착이 낮으면 안녕감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높은 불안애착자들도 용서특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삶의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정애착자들에 비해 적게 증가하는 것일 뿐이다. 이들도 용서특질이 높아질수록 여전히 삶의 만족감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용서특질이 높으면서 불안애착이 높은 자들에게는 애착안정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개입을 한다면 그들이 삶의 만족감을 경험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불안애착이 중간이거나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상황-특정적 용서를 많이 할수록 안녕감을 얻는 정도도 더욱 커짐을 볼 수 있었지만,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신에게 침해를 가한 상대방을 용서하는 상황-특정적 용서를 많이 할수록 이를 통해 안녕감이 오히려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Mikulincer 등(2006)과 Kachadourian 등(2004)의 연구결과 및 설명과 맥이 통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불안애착자들은 “분리불안,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절실한 욕구, 과도한 의존적 태도 등 때문에 자신의 유감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기 쉽고 자기보호적인 동기로 인해서 용서를 적지 않게 할 것이지만(Shaver & Hazan,

1993), 용서를 하게 될 때, 그들이 갖기 쉬운 자기몰두 및 개인적 고통으로 가미된 감정으로 인해 자기애적 상처를 경험하는”(p.206: Mikulincer et al., 2006) 등 용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득을 방해받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침해행동에 대해 용서를 할 경우에는 자기보호적인 동기에서 유감스러운 감정을 억압하고 용서를 하긴 하였지만 뒤따르는 자기애적 상처, 침해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침투적 사고와 상대방, 자기 자신 및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의 복잡한 심리적 기제로 인하여 용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이 상쇄되어 오히려 안녕감은 떨어지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높으면서 특정한 대인관계에서의 침해사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용서개입을 시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인관계에서의 침해사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용서개입을 시도하기 전에 그들의 불안애착의 수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촉진하는 개입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개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상담 초기에 이들의 애착안정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을 먼저 시도하여 충분히 불안애착을 해소하여 애착안정을 유도한 후에 용서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질용서와 상황-특정적 용서 사이에는 불안애착과의 상호작용의 크기 및 양상이 달랐는데 이는 특질로서의 용서와 상황-특정적 용서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용서특질은 특정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과는 구분된 것으로서 시간의 변화

와 다양한 상황에 걸쳐 안정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성, 즉, 일반적인 용서 성향에 가까운 개념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이나 특질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높더라도 용서특질이 높으면 용서경험과 관련하여 양가적 감정과 복잡한 심리적 기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보다 덜 받을 것이며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들(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은 높은 공감능력, 높은 이타심, 높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므로(Carnelley, et al., 1996; Feeney, 1996; Kuncz & Shaver, 1994; Mikulincer & Nachshon, 1991; Mikulincer & Shaver, 2003) 이와 유사한 심리적 특성을 공유하는 용서특질과 정적인 방향으로 상향적 상호작용을 하여 특질용서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은 비율로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구체적 침해사건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특정적 용서의 경우엔 이와 달라서 불안애착이 낮은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불안애착이 클 경우엔 공감능력, 이타심, 동정심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용서특질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황-특정적 용서를 많이 할수록 구체적 용서경험과 관련하여 복잡한 양가적 감정과 개인적 고통 등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 용서경험으로 인해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할 수는 있지만, 부정적 정서와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Kvaal & Patodia, 2000; Melvin & Molloy, 2000; Watson, Clark, & Tellegen, 1988) 긍정적 정서의 상승은 방해될 수 있다.

네 번째 발견은 애착안정의 두 하위차원 중, 회피애착은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

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타나났는데, 이는 회피애착의 수준이 용서의 두 측면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유의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든 낮은 사람들이든 차이 없이 그들의 용서특질이 높아지거나 특정한 관계에서 상황-특정적 용서를 많이 할수록 유사한 정도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들의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회피애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높은 회피애착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용서를 적게 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용서를 할 경우엔 불안애착자들과는 달리 용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득을 상쇄하는 상충되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Mikulincer 등(2006)의 연구에서 회피애착자들은 유의하게 용서특질이 낮았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용서를 유의하게 적게 하였다. Mikulincer 등은 회피애착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서를 적게 할 것이며 타인들로부터 안전한 거리감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정서조절의 비활성화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용서를 적게 할 것이지만, 만일 이들 중 상대적으로 용서를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을 보이거나 파트너의 침해행동에 대해 실제로 용서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정서조절 전략으로 인해 이들은 용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만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용서에 대해, 성인애착에 대해, 애착과 용서와의 관계에 대해, 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용서와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용서, 성인애착, 안녕감의 세 구성개념 사이의 관계를 한 연구에서 동시에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특히,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애착이 조절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용서, 성인애착, 안녕감의 세 구성개념 사이의 관계를 한 연구에서 다루었고, 용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애착유형 중 불안애착이 조절함을 밝혔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애착과 용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거의 모두 애인관계 및 결혼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뿐이며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애착과 용서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없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들을 다른 관계들에까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관계들로부터 균형 잡힌 자료를 얻음으로써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애인관계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절친한 동성친구와의 관계,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관계들에서 성인애착과 용서, 안녕감 사이의 관련성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집에서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인관계나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 형제자매, 친한 동성친구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용서와 성인애착유형의 수준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한 경우 이들을 용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항상 그 개인에게 안녕감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인애착유형 및 불안애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은 임상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불안애착의 수준 및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상황-특정적 용서가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용서관련 개입을 상담 현장에 적용하고자 시도하는 상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는 점이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엔 무조건 용서개입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치료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인관계에서의 침해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용서개입을 시도하기 보다는 그 개인의 불안애착의 정도를 먼저 측정하여 불안애착이 높은 내담자들의 경우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서 서로 다른 차별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을 제안한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내담자들을 위해서는 불안애착의 문제를 해소하고 애착안정을 높이기 위한 다른 개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상담 초기에 애착안정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개입과 용서개입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애착유형 및 애착안정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이지만, Mikulincer 등(2006)은 그들이 수행한 다른 실험적 연구의 결과들을 근거로 애착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을 통해 애착 불안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방어를 피해가고 완화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Johnson, 2003). 그들은 또한 이러한 결과들이 애착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부/커

플 치료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애착안정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한편, 회피애착과 관련하여서는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서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도 낮은 사람들과 유사하게 용서특질 및 상황-특정적 용서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로 측정된 안녕감이 증가하므로 대인관계에서의 침해사건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용서개입을 고려할 때 이들의 회피애착 수준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든 낮은 사람들이든 모두 유사한 정도로 용서촉진 개입을 통해 안녕감이 향상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용서개입 고려 시, 회피애착의 수준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불안애착의 수준만 조심스럽게 고려하여 높은 불안애착자들에게는 차별적인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담자가 대인관계 침해사건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그들의 애착유형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상담의 초기단계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관계 형성뿐 아니라 치료성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본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용서개입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미 증명된 바 있지만,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어떠한 유용한 개입이라도 개인의 특정한 상태에 따라 최적의 개입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개인차 변인 또는 조절변인을 찾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점은

다른 어떠한 유형의 개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우선, 전국적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대학생 집단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의 대학생들만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한국인 전체나 전체 대학생에 일반화하여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 다양한 연령층,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일반화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고 이를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조절효과의 결과 또한 설명력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 및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 성인애착, 안녕감의 관계를 한 연구에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성인애착의 유형 중 불안애착은 용서의 두 측면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불안애착이 높으면서 대인관계 관련 침해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는 애착안정 증진을 위한 개입을 용서개입에 앞서 선행하거나 또는 병행하여 진행하면 용서로 인한 안녕감 증진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조사를 통한 연구이고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실제로 위의 제안과 같은지는 아직까지는

확증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실험적 연구방법을 통해 일반인 집단 및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는 일반인 집단 및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애착안정 증진을 위한 개입을 병행한 집단과 그렇지 않고 용서개입만을 실시한 집단 간에 안녕감 증진 및 기타 다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이 제안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용서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시사성을 갖는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도 조절효과를 밝히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치료적 효과가 입증된 어떠한 유용한 개입이라고 해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개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줄이고, 개인의 특성적 차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적의 치료적 서비스를 찾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 권석만 (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239-261.
- 오영희 (2008). 한국인 용서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45-1063.
- 오영희 (2010). 한국인 용서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7.
- 윤성민 (2011). 행복증진 긍정심리개입활동들의 효과: 개인- 초점적 활동과 관계-초점적 활동의 비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경 (2005).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Mabuk, R. H., Enright, R. D., & Cardis, P. A. (1995). Forgiveness education with parentally love-deprived late adolesc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4*, 427-444.
- Berry, J. W., & Worthington, E. L., Jr. (2001). Forgiveness, relationship quality, stress while imagining relationship event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47-455
- Berry, J. W., Worthington, E. L., O'Connor, L. E., Parrott, L., & Wade, N. G. (2005). Forgiveness, vengeful rumination, and affective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73*, 183-26.
- Boehm, J. K., & Lyubomirsky, S. (2009). The promise of sustainable happiness. In S. J. Lopez(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 pp.667-67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no, G., McCullough, M. E., & Root, L. M.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Two longitudinal stu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82-95.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2nd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3.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 R. P. (200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 Construct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59-71.
- Burnette, J. L., Taylor, K. W., & Worthington, E. L., Forsyth, D. R. (2007). Attachment and trait forgivingness: The mediating role of angry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585-1596.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 257-277.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53-92). London: Jessica Kingsley.
- Coyle, C. T.,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 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042-1046.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mmons, R. A. (2000). Personality and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 K. I. Pargament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156-175).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77-389.
- Feeney, J. A.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Finkel, E. J., Burnette, J. L., & Scissors, L. E. (2007). Vengefully Ever After: Destiny Beliefs, State Attachment Anxiety, and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5, 871-886.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3-992.
- Friedman, P. H. (1989). *Creating well-being: The healing path to love, peace, self-esteem and happiness*. Saratoga, CA: R and E Publishers.
- Friedman, P. H. (1992). *Friedman well-being scale and professional manual*. Foundation for Well-Being. Plymouth Meeting. Palo Alto, CA: PA. and by Mind Garden.
- Gable, S. L., & Haidt, J. (2005). What (and why) is positive psycholog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 103-110.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bl, J. H., & Enright, R. D. (1993). Forgiveness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30, 658-667.
- Johnson, S. M. (2003). Attachment theory: A guide for couple therapy. In S. M. Johnson & V. E. Whiffe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pp.103-123). New York: Guilford.
- Kachadourian, L. K., Fincham, F., & Davila, J. (2004). The tendency to forgive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The role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11, 373-393.
- Kunce, L. J., &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 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205-237). London: Jessica Kingsley.
- Kvaal, S. A., & Patodia, S. (2000). Relations among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matic symptoms in medically ill patient sample. *Psychological Report*, 87, 227-233.
- Lawler, K. A., Younger, J. W., Piferi, R. L., Billington, E., Jobe, R., Edmondson, K., et al. (2003). A change of heart: Cardiovascular correlates of forgiveness in response to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6, 373-393.
- Love, K. M., & Murdock, T. B. (2004). Attachment to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 Examination of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in Intact Families and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4, 600-608.
- Maltby, J., Day, L., & Barber, L. (2005). Forgiveness and happiness, the differing contexts of forgiveness using the distinction between hedonic and eudaimonic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1-3.
- McCullough, M. E.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43-55.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A. (Eds.).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cCullough, M. E., & Worthington, E. L. (1995). Promoting forgiveness: A comparison of two brief psychoeducational group interventions with a waiting-list control. *Counseling and Values*, 40, 55-68.
- Melvin, G. A., & Molloy, G. N. (2000). Som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among Australian youth. *Psychological Report*, 86, 1209-1212.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331.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35, pp.53-152). New York : Academic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Ment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security: Theoretical foundation for a positive social psychology. In M. W. Baldwin (Ed.), *Interpersonal Cognition* (pp.233-266).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8). Does Gratitude Promote Prosocial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Security. In M. Mikulincer & P. R. Shaver(Eds.), *Prosocial Motives, Emotions, and Behavio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ikulincer, M., Shaver, P. R., & Slav, K. (2006). Attachment, mental representations of others, and gratitude and 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M. Mikulincer & G. S. Goodman (Eds.), *Dynamics of romantic love: Attachment, caregiving, and sex* (pp.190-215). New York: Guilford Press.
- Rice, K. G., Cunningham, T., & Young, M.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89-101.
- Roberts, R. C. (1995). Forgivenes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2*, 289-06.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haver, P. R., & Clark, C. L. (1994). The psychodynamics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In J. M. Masling & R. F. Bornstein (Eds.), *Empirical perspectives on object relations theory (Empirical studies of psychoanalytic theories, Vol. 5, pp.105-15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aver, P. R., &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D. Perlman & W. Jones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4, pp.29-70). London: Jessica Kingsley.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tvliet, C. V. O., Knoll, R. W., Hinman, N. G., & DeYoung, P. A. (2010) Compassion-focused reappraisal, benefit-focused reappraisal, and rumination after an interpersonal offense: Emotion regulation implications for subjective emotion, linguistic responses, and physiolog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 3, 226-242.
- Witvliet, C. V. O., Ludwig, T., & Vander Laan, K. (2001). Granting forgiveness or harboring grudges: Implications for emotions, physiology, and health. *Psychological Science, 12*, 117-123.
- Worthington, E. L. (1998). An empathy-humilitycommitment model of forgiveness

- applied within family dyads.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59-76.
- Worthington, E. L. (Ed.).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 Worthington, E. L., Jr., Berry, J. W., Parrott, L., I. I. I., Plante, T. G., & Sherman, A. C. (2001). Unforgiveness, forgiveness, religion, and health. In T. G. Plante & A. C. Sherman (Eds.), *Faith and health: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Worthington, E. L., Jr., & Wade, N. G. (1999). The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18, 385-418.

1 차원고접수 : 2012. 6. 30.

수정원고접수 : 2012. 8. 24.

최종게재결정 : 2012. 9. 19.

Does Adult-Attachment Moderate the Effects of Forgiveness on Well-being?

Sung-Min Yoo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 of two sides of forgiveness including trait forgiveness and situation-specific forgiveness, adult-attachment consisting of two sub dimensions, and well-being measured with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to examine the moderation effects of adult-attachment on these relations. For this study, the data of 400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The research packet included Trait Forgiveness Scale, Korean-Forgiveness Scal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an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1) the two sides of forgivenes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two sub dimensions of adult-attachment, namely,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2) the two sides of forgivenes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well-being, 3) the two sub dimensions of adult-attachment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well-being, 4) attachment anxiety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sides of forgiveness and well-being.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rait forgiveness, situation specific forgiveness, adult-attachment, well-being, moderating effect*